

격 려 사

올해로 10.27 법난이 발생한지 3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민족과 함께해온 교회의 전통 수행처와 수행정신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불교계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켰던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충격은 아직도 온전하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불교계는 그동안 법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종단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1998년에 국무총리가 공식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고 2007년에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10.27 법난 사건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듬해에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등, 종단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은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욕과 신체적 고문으로 오랜 동안 고통에 계시다 입적하신 스님들과 아직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스님들과 불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10.27법난 기념관 건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왜곡된 언론보도에 의해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역사적 진실을 올바르게 알리는 일이며, ‘특정한 종교단체에게 무리하게 적용한 국가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건’이라는 정부의 최종 결론에 따르는 당연한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종단은 이러한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도록 10.27 법난의 교훈을 역사에 바로 새기고 국가의 발전과 화합을 이끌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종단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미래의 자양분으로 삼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이나 단순한 용서만이 답이 아닙니다. 가해사실에 대한 진솔한 인정을 전

제로 한 사과가 이루어져야만 수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10.27 법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만큼, 상호 용서하고 화합하여 두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과 당시의 가해자의 진정어린 사과가 있기를 불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세미나의 주제가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조치 마련을 위한 토론회’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이자 국민분열 사례인 10.27 법난이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가능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세미나 준비와 발제, 토론 등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10.27 법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원장 지현스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종단도 10.27 법난 명예회복과 당사자의 사과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8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